

오가의 나마하게

12월 31일 밤, 각 마을의 청년들이 나마하게로 분장하고 ‘우는 아이는 없느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는 없느냐’, ‘이 집 머느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라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집집마다 돌아 다닙니다.
오가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마하게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무병무사 및 농사의 풍작, 그리고 산과 바다의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매년 정해진 날에 찾아옵니다. 나마하계를 맞아들이는 집에서는 옛부터 이어져 온 방식에 따라 요리나 술을 준비해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오가 시내의 ‘나마하게 행사’는 옛날에는 작은설(정월 대보름)에 열렸지만, 현재는 약 50개 지구에서 양력 12월 31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1978년에 ‘오가의 나마하게’로써 국가지정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잔 지구(2011년도)



신잔 지구 나마하게 초혼제(2011년도)

나마하계의 어원

겨울철에 이로리(일본식 난로) 옆에서 오랫동안 몸을 녹이고 있으면, 손발에 동그란 불 반점이 생깁니다. 이것을 방언으로 ‘나모미’라고 하는데, 게으름을 경계하기 위한 ‘나모미 하기(나모미 벗기기)’라는 말이 ‘나마하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모미 하기’는 신년을 맞이하는 축복의 의미도 있으며, 어린이나 새색시 등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와키모토 오쿠라 지구(1950년대 후반) / 구라누키 요시오 씨 소장



의상

- ① 식칼
② 고헤이
‘나모미’를 벗겨내기 위한 ‘식칼’,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신관이 신전에 올리는 길고 하얀 종이인 ‘고헤이’를 붙인 나무막대를 손에 들고
- ③ 탈
나무껍질, 나무조형물, 소쿠리에 종이를 붙인 것, 종이점토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지역의 조각가가 만든 탈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④ 계데
짚을 이용하여 비옷 모양으로 만든 의상, 탈과 함께 신으로 분장하는 상징적인 의상입니다. 게다시, 겐데, 게라미노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 ⑤ 하바키
짚으로 짠 발도시. 이것을 신고 있는 것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⑥ 짚신
먼 곳에서 눈길을 끌어 오기 위한 짚신.



※ 12월 31일의 나마하게 행사를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니이야마 지구 나마하게(촬영년도 미상)



한무제에게 복숭아를 바치는 그림/아카가미 신사 소장

나마하게 전설

나 마 하 계 의 기 원 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전설이 있는데, ‘중국 한무제 설’, ‘수행자 설’, ‘산신 설’, 그리고 ‘표류 이방인 설’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한무제 설

옛날이야기 “999단의 돌 계단”

중국 한나라 시대에 무제는 불로불사의 약초를 구하기 위해 5마리의 박쥐를 거느리고 오가 지역에 왔다. 5마리의 박쥐는 귀신으로 변신하여 무제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날 ‘하루만 휴가를 주십시오’라고 무제에게 부탁했다. 정월 대보름 하루만 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귀신들은 마을로 내려와 작물이나 가축, 마을의 처녀들에게도 손을 대며 날뛰었다.
곤경에 처한 마을 사람들은 무제에게 ‘해마다 처녀 한 명을 바치겠사오니, 그 대신에 귀신들을 시켜서 첫닭이 울기 전까지 하룻밤 동안에 해변에서 산꼭대기의 고사도까지 천 단의 돌계단을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시에는 귀신들이 두 번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룻밤에 천 단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귀신들은 척척 돌층계를 쌓아 올렸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귀신들이 999단까지 쌓아 올렸을 때 아마노자쿠(작은 요괴)를 시켜 ‘꼬끼오’라고 첫닭 울음소리 흉내를 내도록 했다. 놀란 귀신들은 화가 나서 옆에 서 있던 천년목은 삼나무를 쑥 뽑아서 땅에 거꾸로 쳐 박은 후 산으로 돌아가더니 두 번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오가의 옛날이야기”에서

◆ 나마하게 방문 금지

그 해에 가족이 죽거나 출산이 있었던 집에는 나마하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마하계는 이러한 집에서는 환관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 계데의 효용

나마하계가 집 안에 들어와 날뛰면서 떨어뜨린 계데의 짚은 이튿날 아침까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둥니다. 그 짚으로 머리를 감싸거나 몸의 아픈 곳을 둘러싸면 병이 낫고, 무병무사를 기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도로 이어지는 돌 계단



“오가노사무카제”
아키타 현립박물관 소장 사본

기록

나마하계에 관한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에도시대의 기행가 스가에 마스미(1754~1829)의 “오가노사무카제”입니다. 그는 1811년 정월 대보름에 방문한 오가 미야자와의 나마하계를 생살 벗겨내기(나모미하기)로 소개하며 상세한 해설과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나마하계는 민속학적 시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야나기타 구니오(1875~1962)의 “작은설의 방문자”, 오리쿠치 시노부(1887~1953)의 “마레비토”, 그리고 오카모토 다로(1911~1996)의 “일본 재발견, 예술풍토기” 등에도 등장합니다.

오가의 민속학 연구자 요시다 사부로(1905~1979)는 1935년에 “오가 간푸잔 산기슭 농민 수기”에서 현지의 와키모토무라 오쿠라의 나마하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후, 미나미아키타군 전역에 걸쳐 나마하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 요시다 사부로의 저서는 나마하계에 관한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마하게 세도 축제(2011년도)